PART 01 · 진단

전체 진단

전체 진단

현재 답안은 두 문항 모두 문제의 큰 요구를 빠뜨리지는 않았고, 제시문의 핵심과 주요 수치를 어느 정도 연결한 중간 수준의 답안이다. 특히 문제 1에서 적극적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를 구분하고, 문제 2에서 [가]와 [나]의 차이를 사회적 관계와 주체적 정체성의 차이로 파악한 점은 좋다. 그러나 문제 1에서는 140명과 20명이라는 인원만 비교하여 집단별 비율과 2개월 뒤부터 1년 뒤까지의 감소폭을 놓쳤다. 문제 2에서는 [라]의 '나'가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일부 잘못 썼고, 강압에 맞서면서도 사과를 요구한 행동의 복합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채점자는 제시문을 요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개념이 자료의 어느 수치와 장면을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다음 리라이팅에서는 문제 1에 집단별 비율과 변화폭을 넣고, 문제 2에 정확한 장면 근거와 행동의 목적·방법을 나눈 평가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한 점

- 문제 1에서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의 차이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정체성 형성을 연결했다.
- 문제 1과 문제 2 모두 [가]의 사회적 관계와 [나]의 정체성 지속성이라는 핵심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문제 2에서 [가]와 [나]를 비교한 뒤 [라]의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넘어가는 기본 구조를 갖추었다.

PART 02 · 실제 첨삭

내 답안 정밀교정

내 문장을 실제로 고치는 정밀첨삭

어려운 말로 평가만 하지 않고, **내 답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 문제는 무엇까지 묻는지 → 어떻게 고쳐 쓸지** 순서로 설명합니다.

1. 학생 원문 “따라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A세대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감점 요인] 학생은 참여 정도와 정체성의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읽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다르므로 인원 수만 비교하면 적극적 참여자의 A세대 정체성 응답 비율이 더 높다는 판단을 정확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반이 30명인 곳에서 20명이 찬성한 것과 반이 100명인 곳에서 25명이 찬성한 것을 비교할 때는 사람 수만 보면 안 된다. 작은 반에서 20명은 훨씬 큰 비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쳐 쓴 문장] “적극적 참여자는 150명 중 140명, 즉 약 93.3%가 A세대 정체성이 있다고 답했지만, 소극적 참여자는 50명 중 20명, 즉 40%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A세대 정체성이 더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점수 포인트 · 근거 활용: 수치를 나열하는 답안에서 벗어나 집단 규모를 고려해 A세대 정체성 응답 비율을 비교하고, 참여 정도에 따른 정체성 형성의 차이를 판단하는 답안으로 올라간다.

2. 학생 원문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A세대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감점 요인] 학생은 ‘줄었다’는 변화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모두 썼다. 다만 두 결론 사이를 비율과 집단 간 비교로 이어 주지 않아, 왜 기본 경향이 유지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시험 점수가 두 학생 모두 떨어졌더라도 한 학생이 계속 다른 학생보다 높다면 ‘두 학생의 실력이 완전히 같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감소와 순위 유지라는 두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

[고쳐 쓴 문장] “1년 뒤 ‘그렇다’는 응답은 적극적 참여자에서 140명에서 120명으로, 소극적 참여자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자의 비율은 80%, 소극적 참여자의 비율은 20%로 여전히 차이가 크므로, 정체성이 일부 도전받아도 참여 정도에 따른 기본 경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점수 포인트 · 논리 구조: 단순한 감소 서술에서 벗어나 ‘응답은 감소했지만 적극적 참여자의 우위는 유지된다’는 두 단계 판단을 제시하게 된다.

PART 05 · 직접 교정

대표 원문 직첨삭

1. 집단 전체 인원과 비율을 함께 써라

학생 원문 “[다]를 보면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2개월 뒤 140명이 A세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2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감점 요인] 학생은 140명과 20명을 정확히 옮겼지만 집단 전체 인원인 150명과 50명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정체성 비율을 정확히 비교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10명 중 8명이 찬성한 반과 100명 중 20명이 찬성한 반을 비교하면서 8명보다 20명이 많으니 두 번째 반의 찬성이 더 강하다고 하면 안 된다. 공통적으로 ‘찬성 인원’을 보았지만 반마다 전체 인원이 다르다는 차이를 빠뜨린 것이다.

[다음 답안에서는] 집단별 전체 인원이 다르면 응답 인원만 비교하지 말고 각 집단 안의 비율로 바꿔 비교한다.

[핵심 수정] 140명·20명을 150명·50명 기준 비율로 바꾸기

[고쳐 쓴 문장] “적극적 참여자는 150명 중 140명, 즉 약 93.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소극적 참여자는 50명 중 20명, 즉 40%만 그렇다고 답했다.”

2. 감소와 경향 유지를 함께 해석

학생 원문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A세대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감점 요인] 학생은 ‘줄었다’는 변화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모두 썼다. 다만 두 결론 사이를 비율과 집단 간 비교로 이어 주지 않아, 왜 기본 경향이 유지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두 팀의 점수가 모두 떨어졌는데도 한 팀이 계속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두 팀의 실력이 같아졌다’고 할 수 없다. 점수 감소와 팀 사이의 차이 유지를 함께 봐야 한다.

[다음 답안에서는] 시간에 따른 수치가 줄어도 집단 간 순서와 차이가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수정] 1년 뒤 긍정 응답은 감소했지만 적극적 참여자는 93.3%에서 80%, 소극적 참여자는 40%에서 20%로 줄어 적극적 참여자의 우위가 유지되므로, 정체성이 일부 흔들려도 기본 경향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쳐 쓴 문장] “1년 뒤 ‘그렇다’는 응답은 적극적 참여자에서 140명에서 120명으로, 소극적 참여자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적극적 참여자의 비율은 80%, 소극적 참여자의 비율은 20%로 여전히 차이가 크므로, 정체성이 일부 도전받아도 참여 정도에 따른 기본 경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